



일주문



효일ssi 국대민안 법문
서암 前 조계종 종정스님은 11월 4일 오전 10시 소래산 마애불상 효일사에서 개최되는 국대민안 법회에서 법문한다.



1029일 천도재서 설법
송산 화계사 조실은 29일 오전 11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리는 '1029일 천도재, 여섯 번째 49제'에서 설법한다.



녹색대학 창립 준비위원
도법 실상사 주지는 2003년 개교예정인 환경 시민 전문가 양성 대학인 '녹색대학' 창립 준비위원으로 동참하고 있다.



전일본불교도 대회 참석
남정 총화종 총무원장은 9일 일본 장강사에서 개최된 전일본불교도 대회에 한국측 대표로 참석하고 12일 귀국했다.



봉은사 삼천배 정진법회
원혜 봉은사 주지는 27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삼천배 철야정진 법회'를 봉행한다.



지역노인 경로잔치 열어
실상대구 법암사 주지는 27일 연흥사와 11월 3일 법연사에서 각각 지역노인을 위한 경로잔치를 연다.

지관 스님 은관 문화훈장



인간문화재 1호인 불자 국악인 김천홍이 은관문화훈장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지관스님과 신경림 시인은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또 불자들이 특출한 연륜과 강유정씨와 출판인 윤형두씨는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했으며, 불자가수 송대관씨와 하춘화씨는 육관문화훈장을 각각 받았다.



이외에도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은 제 33회 대한민국문화예술포럼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나희덕 시인은 젊은예술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문화관광부가 문화의 날을 맞아 20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함께 열렸다. 김주일 기자

"염불삼매 들면 부처님 바로 곁에 계시죠"

27년 5개월 1만일 염불수행 회향 설산 스님

"염불(念佛)이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처님의 장엄한 상호를 연상하고 부처님의 공덕에 생각을 모으는 수행입니다. 염불삼매에 빠져 있는 시간만큼은 부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5일 강원도 건봉사에서 1만일(27년5개월) 염불수행을 회향하는 설산스님(정토사주지). 유명한 염불도량인 건봉사 창건 이후 여섯 번째인 만일염불결사를 회향하는 스님은 "염불이야말로 부처님을 친견하는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한암 스님을 모시고 월정사 강원에서 경전공부를 하며 10만거를 성만하고 대선사 실담화원 원장으로 있으며 경론을 강의하는 등 선승의 길을 걸어 왔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인 염불도량인 건봉사에서 출가하고 생활한 탓인지, 염불수행을 하고 싶다는 원력이 항상 있었다.

"출가 후 건봉사에서 공부하는 동안 원호



스님을 비롯해 효봉 청담 동산 스님 모두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길 원하옵니다'라는 송주 誦呪를 외우셨다는 말을 들었다"는 스님은 "6·25사변 이후 폐허가 된 건봉사를 보고, 염불수행의 맥을 잇겠다고 결심

했다"고 말했다.

이때가 74년 5월. 건봉사에서 '만일염불'을 입재한 스님은 삼각산 정토사를 지어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옵고, 미진세계 국토에 몸을 나누어 모든 중생 남김없이 구제하겠나이다'라는 발원과 함께 "만일동안 염불 수행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염불수행을 계속해 왔다.

"염불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다"며 염불수행을 권유하는 설산 스님은 "입으로만 중얼거리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집중해야 공덕이 쌓인다"고 염불수행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1만일이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분별에 불과하다"며 "회향법회는 대중들에게 염불수행의 공덕을 알리는 자리일 뿐, 죽을 때까지 수행자의 길로써 염불을 하겠다"고 말했다.

회향법회는 전국염불만일회(회장 김재일)와 건봉사 금강감계(회장 이영선), 그리고 스님이 주석 중인 정토사 신도회 등에 의해 마련됐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a.com

"외국인 체험실수 프로그램 절실"

한국문화체험 해외거주 포교사 종매 스님

"서양인종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활동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로 열린 해외거주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에 참가한 종매스님(LA보광사 주지, CALIFORNIA)에서 불교학을 강의할 때도 지식위주의 전달보다



효과적으로 포교할 수 있는 방법은 접근하기 쉽고, 흥미를 배가시키는 불교체험 프로그램이다"고 밝혔다.

스님은 "포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불교학을 강의할 때도 지식위주의 전달보다

는 한국 중국 인도사람을 순례하며 직접 피부에 와 닿은 현장 위주의 체험교육을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1970년 구례 화엄사에서 출가한 뒤 1978년 미국으로 건너가 23년간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스위스, 헝가리 등 유럽각지에 포교당을 운영하며 해외의 현지에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스님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불문필자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참선수행법을 외국인들도 쉽게 실수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우 기자 wkwim@buddhapa.com

'세계 지팡이의 날' 장관상

송암사 법진 스님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법진 스님.

"장애인에 용기주고 싶어"

"저와 같은 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부처님의 법음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10여년동안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주상 보시를 실천해 15일 창원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세계 지팡이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법진 스님(의령 송암사 주지).

한시코 상반을 일이 아니라며 부끄럽다는 말만 반복하는 법진 스님도 앞을 전혀 못보는 시각 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스님은 93년부터 매년 8백만원 가량의 쌀과 라면을 독거노인들과 어려운 이웃주민들에게 보시했는가 하면, 97년 5월부터 시각장애아 다당노까지 알면 마산의 한 거사를 올해 3월까지 손수 뒷바라지 하기도 했다. 법진 스님은 "송암사 법당 아래에 부지를 새로 구입해 빠르면 내년말까지 독거노인을 돌볼 수 있는 양노 시설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 가르침 교포들에 큰 위안"

포교원장 표창 김자원 보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상까지 받게 되니 속스럽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게 되리라고

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부처님 법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뉴욕의 교민 방송인 '라디오 서울'에서 불교 프로그램인 '물같이 바람같이'를 진행하고 있는 김자원 보살(53)이 활발한 포교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16일 조계종 포교원장 인영스님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김자원 보살은 미국 뉴욕의 '불교방송'으로 불리는 '물같이 바람같이' 프로그램을 6년간 진행해 오면서 방송 후원단체인 '선재동우회'를 97년 설립하고, 매년 스님 초청법회와 한국 성지순례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여왔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글로 지난 98년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에서 특별상을 받은 바 있다.

한영우 기자



천태종 관문사 창건 3주년 기념법회

천태종 서울 관문사주지 훈광가 14일 창건 3주년 기념 및 인부회합 기원 관문사 창건공덕비 제막식(사진) 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운덕 스님과 정산 감사원장, 춘광 관문사 주지, 박준영 국정홍보처장 등 3천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운덕 총무원장은 "모두 한 마음으로 조국의 평화통일과 사회 정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총화종 종도 3백명 연수교육

총화종은 12-14일 총본산 남양주 수진사에서 3백여 스님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2545년 종도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종정 동광 스님의 법어, 전 총화종 종정 아용스님의 불교강의, 총무원장 남정스님의 지장경 강설 등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 문곡영진사 혜성(정통사) 스님에게 종사 법계가 수여됐다.



경천사 경제살리기 천일기도 회향

총주 경천사주지 동봉는 14일 대웅전에서 '경제살리기 천일기도 회향 및 만공법회'를 봉행했다. 한중환 한나라당 특보단장, 김문배 괴산군수 등 1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동봉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3년전 나라가 어려운 경제위기에 처해 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 극복하고자 시작한 천일기도가 원만한 회향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산불교교육대 교리반 상견례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이하우)은 14일 법어사 금강암에서 '제18기 주야간 교리반 상견례법회'를 8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이육태 법사의 '바른 불자의 삶'을 주제로 한 법문에 이어 사찰예절과 찬불가 배우기, 예불의식, 불교입문 동기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Advertisement for Gaysan Buddhist Relief Society (가야산 범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ell and text: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and '장인 정신 鐘宗社'. Contact info: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043)212-0903. Price: 3,300 won.